



제목	International Symposium on East Anatolia-South Caucasus Cultures
발행언어	영어, 터키어
발행처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발행일	2015. 3. 15.
저자	Birol Can, Mehmet Isikli (저자 겸 편집자)
출판도시	Newcastle upon Tyne
페이지수	440
ISBN 또는 ISSN	978-1443872348

**내용 요약**

2012년 10월, 터키 아나톨리아 북동부 에르주룸에 있는 아타투르크 대학교는 유라시아 실크로드 대학 컨소시엄(ESRUC)의 후원을 받아 '이스트 아나톨리아-사우스코카서스 문화' 주제의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세계 120여 개 교육기관에서 온 학자, 전문가, 관계자들이 모여 이 지역의 문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고학과 미술사, 역사를 포함해서 이 지역 인문학 관련 영역과 주제가 총동원되었고, 동양과 서양, 고대와 중세를 총망라한 업선된 75개의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이 두 권의 책인데, 제1권에는 금석병용시대(金石併用時代)와 청동기시대 관련 논문, 제2권에는 철기시대와 중세의 논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남부 카프카스 산맥은 역사적·문화적·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풍부한 사회경제적인 자원과 인문학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회과학 분야와 고고학 영역의 주 연구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풍부한 물적·문화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북서부 이란, 그리고 북동 터키 지역에 대한 연구는 불충분하다. 더군다나 메소포타미아나 지중해 문명권에 비하면 이 지역은 발굴도, 개척도, 개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동부 아나톨리아와 남부 카프카스는 분명 잠재력이 있는 곳이다. 따라서 대회가 끝나면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이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발굴과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기술의 개발에 의한 문화의 파괴를 인류 최고의 적 내지 위협적인 요소로 본다.